

# 불교식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서 출간

### 조계종 포교원, 2013년 초중고생 대상...젊은 층 포교 큰 힘 기대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학생 여가 활동을 지도하는 지침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 스님)이 2013년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교식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했다.

불교적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서는 ▷어린이·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워크북 ▷배낭 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감을 통한 자기 바라보기 등 3권이다.

책들은 불교의 정신적·문화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학교 특별활동 및 교과목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선 사찰의 어린이·청소년지도자나

학교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과 동영상 CD를 함께 제공한 것도 특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워크북’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비롯해 일선

### 특별활동·교과목 연계 자료집·동영상 CD제공

사찰에서의 적용 방법과 학년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수록해 그룹별 요구가 무엇이고 사찰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돕고 있다.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어린이들이 배낭을 메고 전국의 불교유산을 순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불교문화재 탐방 예시집이다. 책은 2011년 동련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우리나라를 수도권·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눠 진행한 문화탐방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년별 탐방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장소,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오감을 통한 자기 바라보기’는 눈 귀 코 입 촉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명상 지도안이다. 이 책은 명상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과정 및 방법을 제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해 온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외 활동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는 2013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를 대신해 사찰 등 지역 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책 발간을 토대로 사찰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 2013년 교과부 체험활동 사찰위탁교육 가능해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17~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400여 어린이·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5회 불교어린이청소년 지도사 연수를 실시했다.

조동섭·이은경 기자

## 수산지종 대종사 다비, 사리 2과 출현

### 11일 백양사에서 다비식...4월 24일 49재 봉행



3월 7일 원적에 든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3월 11일 오전 10시 장성 백양사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스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원로회의장 자승 스님은 “큰스님의 가르침 만세에 남을 만큼 겸박하고 위아어 보이나 이제 신구의로서 법적 확인할 길 없다고 생각하니 범부 중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고 애도하며 “반선반좌의 안거풍토를 ‘전행’으로 완성하신 수산 대종사여! 오늘 큰스님의 회상에 함께 한 후학들은 이와 같은 대종사의 지혜 그릇 본받을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고



다비 후 수습된 수산지종 대종사 사리 2과

밝혔다.

영결식 후 백양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봉행됐다. 인로왕변을 선두로 200여 개의 만장이 호위하는 장의행렬과 함께 백양사 연화대 다비장으로 이운된 수산 대종사의 법구는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속에 불을 받고 한 줄 연기가 타올라 진정한 고요 속으로 떠났다.

다비식 후 하루가 지난 12일, 백양사는 연화대 밑 지하 1m 깊이에 묻었던 황아리를 수습하는 등 다비장에서 슬픔의식을 거행하고 사리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수산 대종사의 49재는 4월24일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박재민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천태종-신도 사찰 운영, 진각종-중앙집권체제 특징

### 조계종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 현장

3월 15~16일 진각종, 천태종을 차례로 방문한 조계종 종단지도자연수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한국 불교의 장자를 자임하는 조계종이 이웃종단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을 두고 “경이롭다”는 평가도 들린다.

조계종 연수단은 15일 입재식 후 연수단은 진각종 총인원을 찾아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과 종단운영시스템 등을 청취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성직자 등 인적구조 수행법·교육 체계, 재정·복지 등 종단 시스템을 조계종 운영시스템과 비교해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은 총리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성장했지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행풍토와 계행이 종도들에게 대중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육자대명왕진언을 정승하는 수행을 한다. 자성일 불사(일요법회)와 수요불사, 월초불공, 49일 불사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석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사에는 모든 정사·전수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정사·전수 등 성직자는 전체 수입의 20%를, 신도들은 전체 수입의 10%를 회사(보시)한다. 회사는 단지 경사 재시로 구분

해 단사와 경사는 행정 불사 등 종단운영에 사용하고, 재시는 스승들의 노후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진각종은 분담금에 의존하는 조계종과 달리 심인당에서 모인 보시금 가운데 단지·재시는 50% 이상, 경사는 전액 총리원에 헌상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심인당의 잔존수입은 전액 중앙으로 헌상해 유지재단으로 귀속시킨다. 또, 진각종은 종립대학인 위덕대 건립 등을 전액 지원했고, 10년간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혜정 정사는 “전국 심인당의 재원이 중앙으로 모이지만 중앙에서 각 심인당의 불사 등을 지원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중앙집권은 일할 때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단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연수단은 진각종에 이어 중창 60여 년 만에 한국불교 3대종단으로 자리매김한 천태종 분산 구인사를 방문했다.

조계종 연수단은 구인사 도착 후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감사위원 용문 스님 등의 안내로 설법보전을 참배하고, 광명전·대조사전·역대조사전을 차례로 둘러봤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인사 대조사전 불사가 신도들의 원력으로 15년에



3월 15일 진각종 총리원 탑주심인당을 방문한 조계종 연수단이 총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걸쳐 이뤄졌다는 천태종 측 설명에 “10년이 걸려서라도 스스로 불사를 이뤄내는 모습은 본받아야 할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천태종 소개와 종단 운영 특성에 대한 브리핑은 갈승 스님이 진행했다. 갈승 스님은 천태종 3대 지표를 ‘새불교운동을 이끄는 요강’이라고 규정하고 “새불교운동은 근본을 지키되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대중교화”라고 정의했다. 즉, 불교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만 이를 실천하고 방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애국·생활·대중불교가 그 방향이란 설명이다.

천태종은 자문기구로 신도회장 역임자로 구성된 참의원을 두고 있으며, 의결기구인 종의회의 의석 중 일정부분을 재가자가 맡고 있다. 특히, 사찰 운영의 상당부분을 신도회에 일임하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브리핑에 앞선 환영사에서 “조계종이 하나의 종책적 목적을 갖고 천태종을 방문한 것은 일찍이 없던 일로 특별한 의미와 함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겠지만, 서로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불교 발전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ctana@hyunbul.com

2012 한 마음 아버지 마당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강생 모집

대상	아버지만 누구나	인원	원1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일정	2012년 3월 10일(토)~4월 4일(토)	수강료	10만원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 주휴와 6주차는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마감	2012년 3월 4일(일)

※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http://www.hansi.org)에서 확인

빛명상 | 문의전화 1588-3138

인터넷빛명상 무료체험하기 NAVER 인터넷빛명상 | 검색

#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책에서 찾아라!

##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빛(viit)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순환의 법칙

이 책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빛(viit)을 내면에 충전하는 빛(viit)명상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심신의 정화,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빛(viit)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천의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빛(viit)을 만나면 알게 모르게 심신이 정화되고 현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만 그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추천한 책

비과학·반과학·탈과학도 아닌 초과학적인 세계로서의 빛(viit) - 이어령 (조대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상임고문)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 강석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 전 GE Korea 회장, 서양학자)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는 최상의 에너지 - 우동기 (대우그룹 회장)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및 능력 향상의 해택 - 배재욱 (변호사, 전 청와대 서장 비서관)

도서출판 문대 | 정광호 지음 | 12,800원

“참깨 속에 참깨가 들어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우주 근원의 마음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 치유 에너지 있지요

(중앙일보 2011.11.10 문화면(26면) 전면기사)

향기와 빛명상이 있는 그림책방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러주는 정광호 작가의 글과 담담한 김경배 화백의 채색그림이 어우러져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책

도서출판 문대 | 지은이 정광호 | 그림 담담 김경배 | 12,800원  
02)523-3183